

김은미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 Kim, Eunmee |

보행자 도로를 넓히는 도시

보행자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최초로 수립한 시카고



보행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카고

지난 여름동안 시카고 시의 도시계획자는 도시를 가로질러 걷는 보행자들에게 무엇이 되고 안 될 것인지, 크고 작은 아이디어에 관한 여론을 조사해 왔다.

그 결과로, 호우 때마다 물이 넘치는 코너가 어디인지, 또는 보행자들이 직면한 근본적인 안전문제나 지역 내에서 어떤 범죄로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모든 관한 응답은 시카고 보행자 계획에 보고될 것이다.

지난 8월 10일 시카고시 업타운 지역 공개 토론회에서 Sam Schwartz Engineering 소속의 프로젝트 컨설턴트 Mark de la Vergne는 “어떤 보행자 계획이 될 것인가 하면 일반적인 프레임 워크 즉, 모든 사람들은 원스톱 점포에 온 것처럼, 우리가 건축 환경에서 보행자를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해서 세밀히 살피고, 어떻게 계속 더욱 보행자들이 걷고 싶게 환경을 만들어 가는 기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계획은 10년 이내에 자동차로 인한 보행자 사망으로 종료와 같은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5년 마다 50% 씩 차량에 의한 보행자 부상율 줄이는 등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제시 목표는 지난해의 보행자 사고 수치를 분석하여 작성되었고 그 문서는 2009년 보행자에 관련된 충돌로 34명이 사망하고 3,130명이 부상을 당했다. 양 숫자는 2005년부터 낮아졌지만 그 숫자는 지속적으로 낮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5년 보다 2008년 보행자-차량 충돌의 부상자가 더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계획은 또한 지역 거리를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웃을 조직하기 위한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공공 달리 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교통 보행자 안전 코디네이터인 Kiersten Grove는, 이 계획은 모든 도시의 횡단보도에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추가하고 적색등 뒤에 차량이 선회하는 동안 보행자들에게 거리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보행자 간격”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도로가 차량으로 가득 메워진 교통 체증을 없애는 도로 디자인을 진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부서의 노력에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카고 이웃에서 다양한 보행 경험은 도시 전역 계획을 만드는 도시 계획자에게 도전으로 놓여있다. “우리는 도시 전체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de la Vergne는 인정했다. “제퍼슨 공원은 엄청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으며, 리틀 벨리지에서 의견 수렴 시 범죄에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그는 말했다.

청문회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로 돌아온 Lorraine Kells은 시카고에서 최근 경험과 함께 서부에서의 운전행태에 관하여 대조하였다. “버클리에서는, 당신이 눈을 감고 도로변에서 발을 떼면 차들은 브레이크를 세게 밟을 것이고, 멈출 것이다.” 그녀는 또한 말했다. “LA에서는 만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차는 멈출 것이지만 시카고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는 차에 차여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거리를 건너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공포가 있다.” 라며 청중 속의 한 여성의 맞장구를 쳤다.

업타운 지역 토론회에 참석했던 시카고 주민 Ken Cluskey는 이 도시에서 가장 불비는 웨스턴 에비뉴를 따라 있는 몇몇 장소를 지적하며, 그는 보행자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시카고는 현재 보행환경으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제 생각에는, 시카고는 가장 보행친화적인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전 시카고 도시교통센터의 일리노이 대학의 감독인 Siim Soot는 보행자 계획에 관한 노력을 시카고를 포함한 여러 도시들의 문제 해결 방법의 일반적인 생각 전환이라고 했다. “내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도시는 더욱 더 비 동력 운송수단을 지원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한 보행자이던 자전거이던 도시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무엇과 조화가 되어야 한다.

이 수립된 계획은 올해 말 시행계획이다. ■